

社說

명실상부한 大學自律정착

大學의 자율정착은 명실상부한 대학自律정착을 위한 길이다. 대학은 사회의 선진문화 창조와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자율정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總學活動의 反省

大學의 총학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관료주의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大學雨話

金 勇 基

大學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학생들의 열의가 사라지고,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 대학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時事論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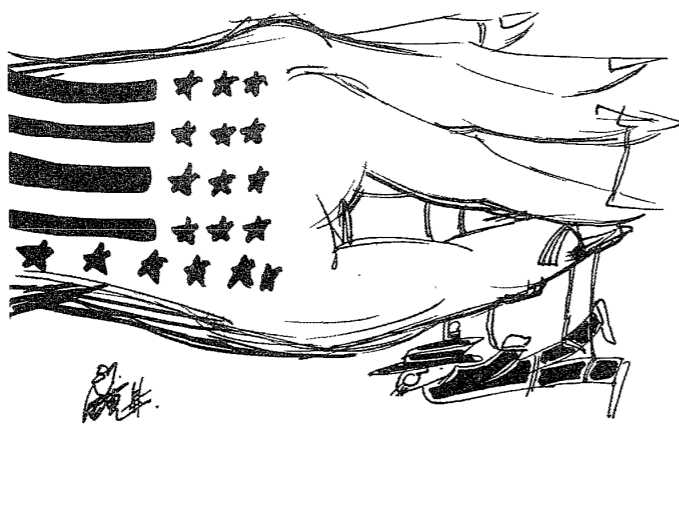
한반도 세력균형의 현상유지만이

한반도 세력균형의 현상유지만이

列強 기상관측 시대는 지났다



金 重 培



한반도 세력균형의 현상유지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불안정하다.

미국은 「탐보적 환상」의 시대 끝났음을 알아야

미국은 탐보적 환상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냉전 시대의 패권 경쟁은 이제 종결되었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제회 始林文學賞 작품현상모집. 문예창작을 통해 東國文學의 전통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품을 공모합니다.

대치모아. 젊음과 젊음이 만나면 더치모아. 더치모아는 젊음과 지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YMCA. 70년 전통의 외국어교육의 전통. 732-8291, 735-1400

국제커플. 남녀(여성기초자 부족) 정무인정정규커플. (株) 한국해외사업자정(국내만하)

34년 전통의 韓 행정(차드·타지) 병 양성전문학원. 757-7598, 753-8890, 753-7914

亞細亞外國語學院. All Faculty Members have post-graduate training abroad. 549-4536/5117

百家房. 문화발전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가방에서는 표구를 비롯 고서화 상담 및 알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農地賃貸借제도 시행의 문제점



李秉東

1. 農地賃貸借制度 실시 방법
 2. 理論的 制度의 문제
 3. 實情에 따른 制度의 改善
 4. 結論

농작물 보호가 시급하다

현상태의 시행은 농가보다 임대주에 유리한 편
 입차료수준·지불방법 기준정해 賃借농가 보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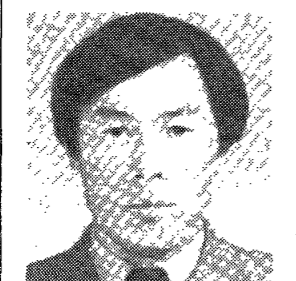
현상태의 시행은 농가보다 임대주에 유리한 편
 입차료수준·지불방법 기준정해 賃借농가 보호를

농정입법위원회 제도개선사

농정입법위원회는 농정입법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그리고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관적근거없이 피상적논의의 거처

개관적근거없이 피상적논의의 거처
 법정의견 및 대안 등의 사정평가 관련 제여동



이영환

87년도를 주름잡을 水性볼펜의 왕!

참, 잘나왔어요!

세림 S 3000

세림 S 1,000

時調文學의 계승가치와 創作機能

1 우리는 흔히 時調를 가리켜서 民族詩나 傳統詩나 혹은 固有詩나 하여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나 문화적 전통을 時調에서 찾고 時調로 설명하려고 할 때 時調가 민족시인의 반본은 시조에 대한 고정형식의 인식기치로서가 아니라 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노력이 현대시조를 설명해주는 조건, 현대시조를 늘 민족시에게 해주는 조건으로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조가 누려온 정형시로서의 의미와 상징성을 상실하고, 현대문학이 요청하는 시적 성취를 위하여 양식 그 자체로서의 민족시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현대시조라거나, 또는 시조의 전통가치를 송상한 나머지 현대문학의 요청을 감당해 내지 못하면서 과거시대의 향수를 현대시조라는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현대시조라는 양식을 살아 남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조가 왜 民族詩요 시조의 무엇이 민족시에게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늘 시조의 계승가치와 창작가치로서 밝혀내야 하고 이러한 해답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으로서의 시조의 생성론적 해명과 시조를 시조에게 해 주는 절대적 조건이 시조의 민족시적 이해를 위하여 분별해야 할 부분만 아니라 이것이 현대문학의 창작의 가능성을 해 주는 조건이자 현대시조의 궁극적 목표로서 특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현대문학의 양식으로서의 현대시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창작시조의 양식적 선택이나 창작시조의 기준으로 뒷받침되는 시조의 무엇이 민족시에게, 「전통시」에, 「고유시」에 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것이 한낱 이론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시조창작의 중심적 과제로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時調의 定型性이 시적 성취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구속조건이 아니라, 늘 현대에 와서도 과거와 같이 우리 민족의 성격을 그려 담는 데 우월적인 형식가치를 지닌 것인가. 만일 이것이 민족시라든가 전통시라든가 우리 詩歌史의 의미를 배제하더라도, 현대적 의미로서의 우리 민족에 알맞는 詩形式을 선택한다고 할 때, 서슴치 않고 바로 이 時調의 定型性이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등은 이른바 시조가 아니라 창작의 실제에서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民族詩란 前時代의 유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시대적 산물로서 민족혼을 꽃피우는 民族性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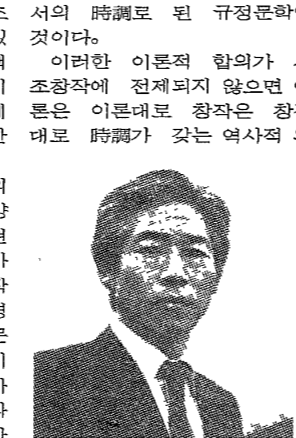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時調라는 民族詩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값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가는 일이 더 중요하고 보람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時調가 갖는 民族詩의 의미는 現代文學이 수용하는 여러 양식과 대비되는 우열의 관계에 있다가나 詩의 성취를 위해서 그 양식의 美善이라는 선택적판단의 밖에서 찾아야 하고 본질적으로는 여러 文學양식으로서 다른 의의와 가치를 발휘하고 있듯이 時調도 時調 그 자체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따질 일인 것이다.

시조가 크기는 늘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설명되고, 또 律格에 의한 시조의 정형이란 인공적 산물이나 발명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본원적 생리요 체질에서 현현된 美善의식의 절정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공약수요, 최고의 미학적 결정체로서 「完結의 美善」을 이룬다면 현대시조는 국어의 개성적 창조를 통한 개인적 미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고, 시조와는 다른 「並列의 美善」으로 설

계 하고 또 단지 현대시조가 우리 앞에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신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시조가 누려 온 역사적 문예학적 이해를 개량해버리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시조전래의 문화적 함수나 복고적 교양들이 아니지만, 고시조에서 현대시조에 이르도록 시조가 갖는 여러 특성이 시조창작에 가치있는 조건으로 투영되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조라는 말과, 시조는 재능이나 감성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학적 이해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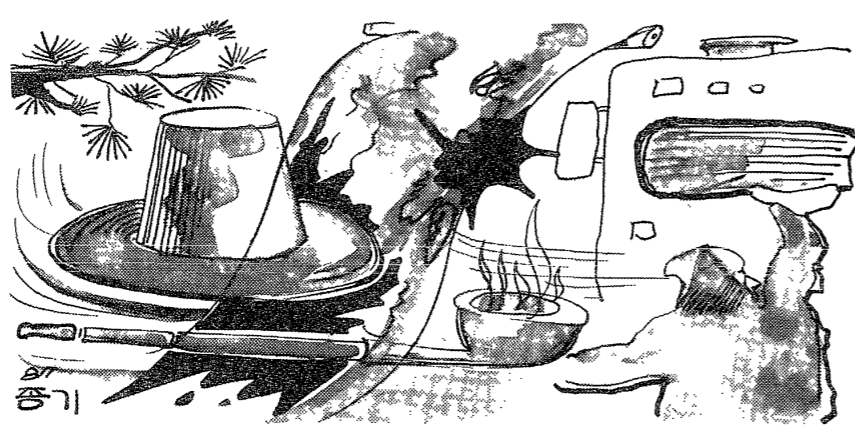
여기서, 첫째, 시조가 우리 민족의 고전으로서의 불변의 성숙도를 가지고 현대시조가 민족시에게 해 주고 있는가. 둘째, 시조가 갖는 정형성이 현대시조로서의 시적 형식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가. 셋째, 전통의 계승으로서의 전래의 창자가 현대의 시조로서의 시조로 완전한 것인가 등의 문제는 현대시조가 안고 있는 숙명적 과제이자 이러한 문제들이 현대시조의 성가로서 얼마만큼 특



金東俊 <사범대·국교과교수>

미를 상실하면서 시조형식으로서의 율격이나 정형성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조건이거나 무의미한 구속조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만다.

2 時調를 가리켜서 民族詩라고 규정할 때, 時調가 「민족을 표현한 시」 또는 「민족을 설명한 시」라 불리었다. 그러



종기

므로, 현대시조에 대한 민족시로서의 주장은 時調가 지니는 전통적인 정형으로서의 시조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형에 담겨져 온 우리 민족의 정서적 情緒樣式까지를 함축해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

時調는 우리 국어의 최대의 공약수요, 최고의 美學的 결정체로서 完結의 美善을 이뤄

물론 고정형식이라는 시조가 시인의 개성이나 재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시인은 고정된 형식을 어떻게 시의 구조형식 속에 재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결국 시조의 고정형식이란 시인의 창작단계에서 형성되는 창조하는 자원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시조가 민족혼의 계발이나 문화유산의 발원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출발한 점을 생각할 때, 古時調와 현대시조의 개념설정을 구분짓

○...國文學의 대표적 장르의 하나인 時調文學은 예로부터 우리의 민족정서를 전달해왔으며 엄격한 율조속에 민족혼을 꽃피워왔다. 그러나 現代에 이르러서는 時調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어 民族詩·傳統詩로서의 현대시조문학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本稿에서는 民族詩로서의 이해와 근거를 살펴보고 시조문학의 계승가치와 창작기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지면상 本稿는 上·下로 나누어 연재함)

<편집자註>...○

民族詩로서의 근거와 그 특성을 확인하고 증명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時調가 현상적으로 여러 다른 詩歌樣式을 압도했다거나 또는 다른 詩歌樣式에 비해서 그 시적 성과가 뛰어나 있다는 말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족시란 그 민족이 발전·육성해 온 민족소유의

民族詩로서의 전통적 특수성은 계승되어야

民族詩란 당시대적 산물로서 民族性의 정수 時調의 定型性은 本源的 생리와 美意識 표현

의 존립의 의미는 상실되고 또 긍정적으로 時調의 존립의 의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時調의 형식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時調의 정서양식일 것을 요구한다. 민족의 차이에서 구별되어지는 文化感—민족의 특성에서 발견되고 감각되어지는 시적 인식과 사실의 개념이 민족정서의 원리로 파악되면서 시의 실제에 적용되고 수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시조의 창작의 실제에서 시조형식의 생성적 원리에 대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시조를 민족시에게 창작되어져야 한다는 명제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는 자유시보다 수평이 요구되고 실제 창작과정에서 자유시보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겠다.

현대시조가 자유시와는 달리, 그 내용이나 표현기법에 정형화된 발파와 요령이 필요하며 시조의 이러한 일차적 구속성이 늘 하나의 시조형식의 강요로서의 시적 가치로 발휘되면서 자유시가 갖지 못하는 특성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조의 창작은 그 시조시인의 예술적 체형이나 시적 능력 뿐만 아니라, 민족시로서의 시조의 전통적 이해가 선행되면서, 이러한 재능은 단순하게 드러나는 외형적 특성이 아니라, 크게는 한 편의 시적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고, 작가는 구체적으로 시의 선택, 표현 기법, 형의 배열과 초창·중창·종창 사이의 구성이나 전개까지도 특정한 것 하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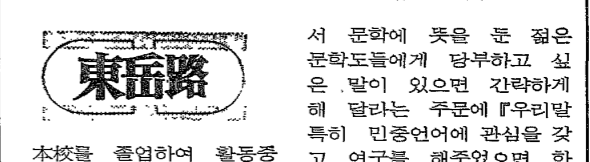
왜냐하면, 시조의 전통적 원리와 상관이 없는 시조, 시조의 민족적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시조나 그 시조시인이 시조에 대해서 요구하는 특자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현대시조의 존립의 의미가 없게 되고 「또 이러한 몇가지의 특색을 시조에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시조가 자유시와 별다른 차이를 이루지 못한다 하겠다. 이것이 바로 현대시조가 운명적으로 감내해야 할 당면과제요, 시조를 시조에게 해주는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民族詩를 시가의 본질적 특색과 함께 그 창작의 실제에서 그 민족의 특색있는 詩樣式으로 볼 때, 첫째, 민족의식이 가장 잘 반영된 시 둘째, 민족주의에 입각한 시 셋째, 그 민족의 전통적 시가형식에 의한 시 넷째, 그 민족의 정서양식을 추구한 시 등으로 규정한다면, 民族詩란 그 민족과 역사를 설명해 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조가 民族詩라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족과 민족시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이른다.

<다음호에 계속>

제1회 東國文學賞 수상자와 함께



신경림 詩人, 58년 영문학박사

本校를 졸업하여 활동중인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회」가 제정된 동국문학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詩人 申庚林씨를 만나보고 그의 이모저모를 알아 보았다.

서울 한복판의 조그만 창고를 찾아갔을 때 작은 키였지만 눈빛이 유난히도 빛나는 것이 시인의 해안을 엿볼 수 있었다. 수상소감을 들은 뒤에 『동국문학인회』가 선정된 상이고, 머나먼 첫 번째로 수상하게 된 큰 뜻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申君은 평소에도 좋고 있는 문학관을 소개해 달라고 하자, 『시를 포함하여 모든 文學은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되며 삶과 유리된 문학은 가치가 없다』

「삶과 유리된 문학은 가치가 없다」

고 결론 생각해 왔다』 라는 필담한 말로 대답했다. 요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 「서정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는 틀음에 「서정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 서정성을 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두 견해 모두 그릇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서정성을 증오시 하다면 시가 삶과 동떨어지기 쉽기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申君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아끼지 않는다.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민요를 수집하여 「민요기행」이라는 저서를 내놓는 등 민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묻자 「특별한 뜻이 라기보다 민요에는 서민들의 애환과 정서가 담겨있고 순수한 우리말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라고 웃으며

東國漫評



◇『알레 불시다!』

申君은 평소에도 좋고 있는 문학관을 소개해 달라고 하자, 『시를 포함하여 모든 文學은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되며 삶과 유리된 문학은 가치가 없다』

「삶과 유리된 문학은 가치가 없다」

고 결론 생각해 왔다』 라는 필담한 말로 대답했다. 요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 「서정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는 틀음에 「서정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 서정성을 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두 견해 모두 그릇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서정성을 증오시 하다면 시가 삶과 동떨어지기 쉽기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申君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아끼지 않는다.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민요를 수집하여 「민요기행」이라는 저서를 내놓는 등 민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묻자 「특별한 뜻이 라기보다 민요에는 서민들의 애환과 정서가 담겨있고 순수한 우리말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라고 웃으며

롯데골든인삼맛껌에는 인삼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인삼의 맛을 껌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골든인삼맛껌은 대한민국 전매청 허가품입니다. 입안이 텁텁할 때 골든인삼맛껌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씹을만한 맛에 입안이 개운해지고 기분마저 상쾌해집니다.

